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돼지고기 비축 확대와 공급 적정화 추진
FTA 활용지원 정책안

거시경제 동향

2012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기획 정보

국내외 행복관련 지수 개발 동향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9월 FAO 식량가격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돼지고기 비축 확대와 공급 적정화 추진

※ 본 자료는 10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정부양돈업계, 돼지고기 비축 확대와 공급 적정화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추진 배경

○ **최근 돼지고기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사육마리수가 구제역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어 **가격이 약세 지속**

※ 도매가격(탕박): ('10) 3,891원/kg → ('11) 5,849 → ('12.8) 4,155 → ('12.9) 3,645 → ('10.4) 3,122

※ 사육마리수: ('10) 988만 마리 → ('11) 817 → ('12.6) 943 → ('12.9) 994 → ('12.12P) 960~980

※ '11년 생산비(탕박기준) 추정: (생산비) 3,925원/kg, (경영비) 3,680원/kg

○ 이에 정부는 **하반기 돼지가격 안정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비축 확대 및 공급 적정화를 추진**하기로 발표

□ 주요 내용

1. 국내산 돼지고기 비축 확대

○ **도매시장 상장 물량 구매·비축(10.8~10.31)**

- 도매시장 가격이 3,500원/kg 이하 시 도매시장에서 2천 마리/일 구매·비축

※ 도매시장 출하물량: ('08~'10평균 10월) 7,202마리/일 → ('12.9) 7,315 → ('12.10.1~4) 8,691

- 농협(조합)이 3개월 동안 비축(5만 원/1마리 지원)

○ **돼지고기 뒷다리살 2만 톤 비축 실시**

- 뒷다리살(후지) 가격이 3,300원/kg 이하 시 **시세로 매입·비축(6개월)하는 업체**(육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육류유통업체 등)에게 **비축자금**(매입기간만큼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리 8% 적용) **지원**

※ 뒷다리살 가격이 3,000원/kg 형성 시, 일반적으로 도매지육가격(탕박)은 3,850원/kg 수준을 형성

○ 햄·소시지 등 **육가공 원료육의 국내산 사용비중 확대**(40% → 72.3%)
및 원료 비축 확대(11.8일분 → 14.1일분)

- 육가공원료육의 국내산 사용비중을 40%에서 72.3%로 높일 경우 하반기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14천 톤(93만 마리분) 정도 대체 사용
 - ※ 육가공업체가 원료육 비축기간을 11.8일에서 14.1일로 늘릴 경우 재고량이 2,897톤에서 3,329톤으로 늘어나 432톤(29천 마리분) 추가 비축하는 효과

2. 국내산 돼지고기 썩쟁 공급

○ **사육규모 적정화**를 위해 8~10월 중 **저능력 모돈 8만 마리 도태**

- 농협중앙회는 양돈조합별로 일상적 모돈 갱신율을 초과하여 모돈을 도태하는 실적을 감안하여 무이자자금 150억 원 지원(농협자체자금)
 - ※ 9월 말 까지 실적(30,318마리 도태)

○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8~10월 중 **불량 자돈 10만 마리 선발 도태**

※ 농협 및 한돈협회가 주관이 되어 캠페인 전개 및 독려
 ※ 9월 말 까지 실적(39,244마리 도태)

○ 돼지 **조기출하**로 **출하체중 감축**(115kg → 110)

※ 7월부터 캠페인 전개 중
 ※ 출하체중: ('12.1) 116.3kg → (2월) 117.7 → (3월) 116.8 → (4월) 116.4 → (5월) 115.0 → (6월) 113.3 → (8월) 111 → (9월) 112

○ **한돈자조금** 등을 통한 **소비 촉진 사업 추진** 등

- 온/오프라인 판촉지원 및 단체급식소 소비확대 추진
- 명절 선물세트 소비촉진 및 김장철 소비촉진 이벤트 추진
- 초·중학교 500개소(420천 명)에 소시지(국내산 돈육 원료 100%) 급식 지원
- 할인판매 및 지역별 소비촉진 시식회 집중 개최 등

주요 농정 이슈_2

FTA 활용지원 정책안

※ 본 자료는 10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16차 FTA 활용지원 정책 협의회 개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1. 농식품 수출 현황

○ (농식품 수출현황) '12.9월 현재,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한 4,084억 달러이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한 56.4억 달러 기록

-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 상회**

<'12년 농식품 수출증가율 및 전체 수출증가율(전년 동기대비)>

단위: %

구 분										1~9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농식품	11.7	29.2	11.7	△8.0	0.9	6.6	6.6	0.4	△0.1	4.2
전 체	△7.3	20.5	△1.5	△5.0	△0.8	1.0	△8.8	△6.2	△1.8	△1.5

- FTA 체결국인 ASEAN·미국·EU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홍콩·대만은 감소세

<국가별 농식품 수출 동향(전년대비)>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전 체
	일본	ASEAN	미국	EU	중국	홍콩	대만	
'11년	1709.1	743.8	434.2	272.9	840.8	223.4	186.0	5,410.3
'12년	1733.8	845.8	472.4	308.7	818.4	203.1	161.8	5,639.8
'12년 증가율	1.4	13.7	8.8	13.1	△2.7	△9.1	△13.0	4.2

2.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 (해외분야) 수출과 직결되는 **단기 수출확대 통합마케팅을 전개**하고, 해외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신규거래를 주선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 등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강화**

<지역별 통합마케팅 추진내용>

지역	추진내용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호조세가 높은 지역으로 인적·물적 자원 집중투입 ○ (베트남)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 및 관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닭고기 물류창고 지원: 융탄탕 (싱그린푸드 바이어/ 9.15~) - 사이공 쿠프, 롯데마트 등 현지 유통업체 연계 관측강화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유통업체 연계 관측행사 규모확대 등 관측강화 - 하반기 시즌품목인 딸기, 단감 등 신선농산물 관측홍보 집중 ○ (캄보디아, 미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시장개척요원 활용 현지 식품 수입바이어 발굴 - 면류·음료 등 인기식품 유통업체 연계 신규관측 추진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 중문라벨링 컨설팅지원 지속추진(29업체 지원 중) ○ 수출호조 수산물목(김 등) 관측 및 홍보강화로 부진만회 ○ 대규모 입점 상담회 및 2, 3선 도시 집중관측 추진 ○ 저년근 인삼 식품화에 따른 바이어 초청 및 현지로드쇼 추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담회 등 바이어 대상 행사 우선추진(네트워크 관리) ○ 대형유통업체 관측은 시식 및 시음행사 중심 마케팅 추진 ○ 소비시즌 및 분위기 회복이 예상되는 연말 집중관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체결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연말관측 추진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스크바) 한국산 과채류 마켓테스트 및 신규입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사(K무역바이어) /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등 ○ (극동지역) 식품박람회 참가(블라디보스톡), 화훼홍보행사(하바로브스키) ○ 수출호조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현지 유통업체 관측지원
미국/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수해품목 및 인기가공품 현지 유통업체 관측강화 ○ 단기 수출증대가 가능한 중국계 아시안 마켓 집중관측

- (국내분야)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식품기업 수출 협의회·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확대를 견인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출업체의 수출확대를 독려** 등 추진

□ FTA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

- (프로세스 개선) **인력양성 전문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수행기관 조기 선정, 성과시스템 정비**를 통해 사업 효율성 제고
 - FTA활용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전반의 프로세스를 전담하여 관리·운영할 전문운영기관 지정**을 추진('13년~)
 -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수행기관을 조기 선정하고, 사업 추진실적과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13년도 지원금을 차등 배분**(대학 FTA강좌, FTA비즈니스 석사과정)
-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대학FTA강좌 개선, FTA전문 컨설턴트 과정 지속, **FTA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 신설**, e-러닝 교육 강화
 - FTA 전문컨설턴트 과정은 '13년도에도 단계별 커리큘럼을 통해 국제 경제 트렌드, FTA원산지 활용, FTA 마케팅 전략, FTA 컨설팅 기법 등에 대한 교육 지속 추진
 - FTA활용 비즈니스 과정을 신설하여 대학원 내 FTA활용 과정 지원
 - e-러닝 교육은 정부, 기업, 대학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를 활용한 학습환경 구현
- (양성인력의 활용) **배출인력**을 각 기관에서 실시 중인 **FTA정책에 활용**하고, **취업박람회를 실시하여 고용 유도**
 - 컨설팅(FTA닥터)시 **'퇴직인력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지역센터 주관 교육·컨설팅 시 교육이수자를 강사·상담·자문역으로 적극 활용
 - FTA활용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박람회 실시 추진('13년)

※ 본 자료는 10월 11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2012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전년 동월대비 1.0% 상승)
- 농림수산물: 태풍 영향으로 채소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5.9% 상승(전년 동월대비 7.4% 상승)
- 공산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은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0.7% 상승(전년 동월대비 보합)
- 서비스: 금융, 전문서비스는 올랐으나 운수, 기타서비스가 내려 전월 대비 보합(전년 동월대비 1.3% 상승)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6월	7월	8월	9월	'12.6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1000	-1.4	-0.5	0.7	0.7	0.8	-0.1	0.3	1.0
농 립 수 산 품	43.6	-5.9	0.2	5.5	5.9	0.2	-3.4	-2.9	7.4
곡	11.0	0.0	0.0	-0.2	-1.0	5.7	5.8	5.7	4.7
채 소	7.4	-12.3	9.5	13.4	29.5	26.4	2.5	-3.4	30.2
과 실	5.3	-9.9	-4.6	11.2	2.2	9.6	9.3	16.9	30.5
축 산	12.0	0.8	-2.9	0.9	-3.6	-15.0	-12.6	-11.8	-10.2
수 산 식 품	5.3	-2.6	0.5	0.9	2.1	-7.9	-12.5	-12.7	-4.2
공 산 품	644.8	-1.6	-0.8	0.6	0.7	0.3	-0.7	-0.2	0.0
석 유 제 품	59.7	-4.9	-2.5	3.2	3.6	2.4	-0.8	2.7	5.2
화 학 제 품	55.2	-5.4	-1.7	1.8	2.3	-3.2	-2.8	-1.7	-1.0
1 차 금 속 제 품	65.6	-2.7	-1.7	-0.8	0.6	-4.8	-6.7	-7.5	-6.4
전 자 부 품 · 컴 퓨 터 · 영 상 음 향 · 통 신 장 비	93.7	0.5	-0.9	-0.5	-0.9	-1.5	-0.2	-0.5	-2.1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61.0	0.4	0.5	0.1	-0.5	1.1	1.6	1.7	0.2
전 력 · 수 도 · 가 스	44.5	0.1	0.1	2.7	-0.1	7.8	7.5	7.8	7.5
서 비 스	264.4	-0.2	0.2	0.1	0.0	0.8	0.7	1.0	1.3
운 수	61.6	-0.5	0.5	0.1	-0.7	1.9	2.5	2.3	1.5
금 융	27.4	-0.7	0.0	0.9	1.4	-5.5	-7.1	-2.8	0.1
전 문 서 비 스	43.3	-0.2	-0.2	-0.1	0.5	2.6	2.1	2.1	2.4
기 타 서 비 스	31.1	0.1	0.5	0.1	-0.7	3.3	2.9	2.7	2.4

□ 특수분류별

- 식료품은 전월대비 3.4% 상승(전년 동월대비 5.7% 상승)
-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17.5% 상승(전년 동월대비 26.9% 하락)
- 에너지는 전월대비 2.2% 상승(전년 동월대비 6.3% 상승)
- 신선식품및에너지 이외는 전월대비 0.2% 상승(전년 동월대비 0.3% 하락)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6월	7월	8월	9월	'12.6월	7월	8월	9월
식 료 품	81.3	-2.3	0.5	2.6	3.4	2.3	0.1	0.2	5.7
식 료 품 이 외	918.7	-1.4	-0.5	0.6	0.4	0.7	-0.1	0.4	0.6
신 선 식 품	16.4	-10.1	3.2	10.8	17.5	7.9	-3.4	-3.8	26.9
신 선 식 품 이 외	983.6	-1.3	-0.5	0.6	0.4	0.7	0.0	0.4	0.6
에 너 지	93.8	-2.2	-2.3	2.5	2.2	5.9	2.8	4.4	6.3
에 너 지 이 외	906.2	-1.3	-0.2	0.5	0.5	0.1	-0.4	-0.2	0.3
I T	175.1	-0.1	-0.5	-0.2	-0.1	-1.2	-1.3	-1.3	-1.5
I T 이 외	824.9	-1.6	-0.5	0.9	0.8	1.1	0.1	0.6	1.4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89.8	-1.1	-0.3	0.3	0.2	0.0	-0.4	-0.2	-0.3

□ **영복지수란?**

-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
- 세계 각국 국민 1,000~2,000명 설문을 통해 ‘행복도’와 ‘생활만족도’ 점수를 매긴 다음 평균을 내서 산출한 것(1981~, 미국 미시간대 사회연구소)
 - ‘행복지수’는 편의상 번역이고 원래 명칭은 ‘주관적 웰빙 순위(Subjective Well-being Rankings)’
 - ※ ‘주관적’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이 조사가 빈부의 순서 등과 같이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행복한 국민’ 또는 ‘마음이 불행한 국민’의 순위를 매겨놓은 것임을 뜻함.
- 행복은 인생관·적응력·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ersonal), 건강·돈·인간관계 등 생존조건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자존심·기대·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 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2002,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 상담사 코언)

□ **주요 국제기구의 행복관련 지수 개발 동향**

-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지표로서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율, 평균수명 등 206개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하여 각 국가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
 - 2011년 기준 선진국은 47개국이며, 1위 노르웨이(0.939), 2위 오스트레일리아(0.929), 3위 네덜란드(0.910), 4위 미국 (0.910), 5위 뉴질랜드(0.908), ..., 12위 일본(0.901).
 - ※ **한국: 15위(0.897)**

○ **국가행복지수(NIW: National Index of Wellbeing)**

- OECD(34개국)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와 함께 2006년 6월 밀라노에서 개최한 국제워크숍에서 제안된 것으로 기본적인 틀은 캐나다 행복지수(CIW)와 동일하며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등의 화폐적 지표와 사회적 요인, 환경 요인, 주관적 행복 등의 비화폐적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 지수
- 2011년 기준으로 1위 스위스(0.747), 2위 룩셈부르크(0.745), 3위 노르웨이(0.736), 4위 스웨덴(0.734), 5위 오스트리아(0.712), ..., 18위 일본(0.617).
 - ※ **한국: 25위(0.475)**

○ **행복한 지구 지수(HPI: The happy planet Index)**

- 영국의 신경경제학에서 발표하는 지표로서 행복을 평가하기 위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활과정에서 초래되는 생태학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을 이용하여 평가한 지수
- 2011년 기준으로 1위 코스타리카(64.0), 2위 베트남(60.4), 3위 콜롬비아(59.8), 4위 엘살바도르(58.9), 5위 브라질(59.3), ..., 45위 일본(47.5), ..., 63위 한국(43.8) 순임.
 - ※ **한국: 63위(43.8)**

<주요 국가의 행복관련 지수 개발 동향>

○ **캐나다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캐나다의 경제, 보건, 사회와 환경 분야의 진보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
- 지수는 생활수준과 여과시간의 활용, 건강, 생태계의 건전성, 교육, 지역 사회의 활력, 시민의 참여 등 7개 영역 36개 지표 등을 이용하여 측정

○ **일본의 新국민생활지표**

- 일본정부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하나의 지수로 제시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
- 지수는 주거, 소비지출, 근로, 양육, 보건의료, 여가, 교육, 관계 등 8개 영역 28개 지표 등을 이용하여 측정

○ **부탄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 경제적인 고도성장이 아닌 전 국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부탄 정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복지수
-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낮은 반면 주관적인 요인인 정신적, 영적, 종교적 등의 측면을 강조

○ **홍콩의 삶의 질 지수**

- 사회문화, 경제, 환경 영역의 객관적 및 주관적 지표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수 산출
- 21개 지표 중 스트레스 지수, 삶의 만족도 지수, 언론비판 지수, 언론자유도 지수, 정부수행 지수, 현재 경제상황 지수 등 6개 지표는 연구자들이 측정하여 산출

□ **국내의 관련지수 개발 동향**

1) **전국 단위**

○ **경제적 행복지수(EHI: Economic Happiness Index, 유병규 외 현대경제연구원, 2012)**

-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적 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됨으로 정의
-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이며 여기에 전반적 행복감을 추가하여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산출

○ **지역발전지수(김영수 · 변창욱, 산업연구원, 2006)**

- 지역경제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로 구분
- 지역경제력지수는 소득수준, 산업발전, 혁신역량, 인력기반, SOC/재정력으로 구성하고 주민활력지수는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여건, 의료복지, 문화 환경으로 구성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하고 지역 간 발전격차를 분석

<행복지수 개발 동향>

○ **장영식 외(2007)**

- 우리나라를 포함 OECD 회원국들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건강, GDP, 교육, 직업 안정성, 환경, 가족생활, 안전, 디지털 기회 등 8개 분야에 걸쳐 8개 지표(건강수명, 1인당 GDP, 비문명물·취학률, 실업률, CO2 배출량, 이혼율, 고의적 살인빈도, 전화·이동전화·인터넷 이용정도)를 이용하여 산출

○ **김명소 · 한영석(2006)**

- Focus group interview와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인식하는 행복요인을 도출한 후 LISREL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 공식 개발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생존, 관계, 성장의 3대 영역으로 재분류하여 행복 = (2.5 × 생존) + (2.5 × 관계) + (5.0 × 성장)이라는 산출 공식 도출

○ **김승권 외(2008)**

- 각 분야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지표를 개발, 각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1차적으로 10개 영역의 41개 세부지표를 선정한 후 델파이조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행복수준 측정 지표로서 9개 영역의 21개 세부지표를 선정

○ **김용하 외(2009)**

- OECD의 NIW 지수(국가행복지수)를 기초로 경제적 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 주관적 생활만족도 등 7개 분야의 26개 세부지표 이용
- 범주별, 세부지표별 가중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해 산출

2) **지역 단위**

○ **서울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경제, 문화, 복지, 환경, 시민 등 5개 영역에 걸친 37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인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8개 분야의 21개 문항을 확정하여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행복을 측정

○ 경기도(조성호 외, 경기개발연구원, 2009)

- 지역경제, 교육 및 문화, 교통, 주거 및 환경, 정보화, 일반 행정, 사회 복지, 사회 안전 분야에 대해 31개 시·군의 객관적 지표 점수를 산출
- 8개 영역에 걸쳐 44개의 세부지표를 이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

○ 대전광역시(정선기, 대전발전연구원, 2007)

- 지역경제와 사회 안전 영역을 각각 주관적·객관적 자료로 구분
- 주관적 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고, 객관적 지표는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측정

○ 제주특별자치도(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2010)

- 인구구조, 지역경제, 사회·문화, 주거 및 환경, 사회복지, 안전 등 6부분으로 영역을 나누어 모두 29개 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지수 측정

※ 참고문헌

- 장영식 외,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김명소·한영석,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Vol. 11 No.1, 200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2006
- 조성호 외, 「경기도민의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 정선기, 「대전시민의 삶의 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07
- 강창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행복지수) 평가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0
- 유병규 외, 「경제 행복, 일자리와 물가에 좌우 - 제10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현대경제연구원, 2012.7
- 황규선, 「강원도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12.4
- 김용하 외, 「OECD 국가 행복지수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김승권 외,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영수 외,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 간 발전격차 분석」 산업연구원, 2006
- 다수의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참조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0월 8일~12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안·육우·돼지 사육마릿수 사상 최대

- 통계청, 10.8일,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한·육우와 돼지의 사육 마릿수 사상 최대치 기록**. 올해 3분기 국내에서 사육되는 한·육우는 2분기보다 3만4,000마리가 늘어 314만3,000마리로 집계. 이와 같은 한우 사육 마릿수의 증가 현상은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돼지 역시 구제역 이후 모돈 회복으로 생산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2분기보다 50만4,000마리가 늘어난 993만7,000마리로 집계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10.10).

□ 안·일 외교마찰 이후...우리 농식품 제 1 수출시장 은둔

2011~2012년 7~9월 막걸리 대일 수출 비교 (단위:달러, 출처:at)



- **한·일간 외교마찰 이후 우리 농식품 대일 수출 위축**. 농식품부, 10.8일, 올 9월 농식품 전체 수출실적 6억5,31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1% 감소. 특히 **우리 농식품의 제1의 수출시장 일본의 경우 당월 실적은 1억9,000만 달러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2억1,030만 달러)에 비해 **약 10% 감소**. 특히 최근 2~3년간 폭발적인 수출성장세를 기록한 막걸리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대일 수출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가장 큰 타격(그래프 참조)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10.11).

□ 증금속 수입농산물 연 1,000t 넘어

- 박민수 민주당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수은이나 납 등 증금속이 함유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이 매년 1,000t이 넘으며,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수입농산물은 2010년 255건 2,030t, 2011년 278건 2,498t, 올 8월 현재 173건 1,395t. 수입농산물에 대해 철저한 정밀검사 필요
자료 : 농민신문(2012.10.10).

□ GAP 인증비율 3% 불과·피부 악당은 예택 적고 홍보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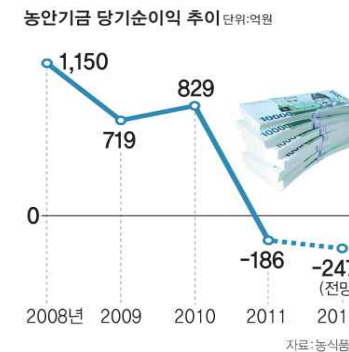
- 농산물우수관리제(GAP)가 시행 7년째를 맞고 있지만 전체농가 대비 인증비율이 3%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문제점) ① GAP 인증에 따른 농가 혜택 적어...GAP 인증만으로는 소득측면에서 혜택이 없어 친환경인증을 동시에 받은 농가의 경우 GAP 인증마크는 부착하지 않고 친환경인증마크만 부착해 출하. 농가소득 향상과 판로문제 개선 필요, ② 정부 지원 부족...안전성검사 분석 수수료 지원 뿐. 오히려 GAP 농산물은 출하할 때 반드시 GAP 인증시설에서 선별·포장을 해야 해 수수료 부담 추가, ③ 홍보 부족...GAP 홍보가 덜 돼 인터넷에서 GAP 인증 농산물을 검색하면 친환경 농산물이 검색되는 실정, ▲(활성화 방안) ① GAP 인증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GAP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시설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해결과제, ② 정부의 GAP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 강화를 통해 폭넓은 소비층 확보 필요...기준에 설립된 중소형 유통센터를 활용, GAP 시설로 개선해 인증농가들의 시설이용 편리성 확대, ③ GAP시설 및 농가 인증과정에서 농산물의 안전성과 이력추적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규정을 보완해 탄력적으로 운영 필요.

자료 : 농민신문(2012.10.12).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단가 현실화 필요

- 지난번 태풍 때 피해를 입어 농약대와 대파비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농업인들의 원성이 높음. 게다가 경작 규모가 적은 일부 영세농들은 큰 피해를 보고도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음...▲(지원 방식) 각 지자체는 소방방재청이 태풍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토대로 산정한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50만 원부터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문제점) 경작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농가의 경우 피해면적이 적을 수밖에 없는 데다 벼와 밭작물을 합친 피해율이 50% 미만이면 재난지수도 300 미만에 해당돼 지원금을 받지 못함. 벼는 피해율이 5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지만 밭작물은 참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30% 이상 되기가 어렵다는 게 농업인들의 공통된 지적. 태풍 피해를 입은 모든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단가에 대한 현실화 필요

□ 농안기금 건전성 '악화일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 지난해부터 적자 기록한데 이어 올해 적자폭이 더 커질 전망. 농안기금 적자가 계속 누적

되면 농산물 수매, 비축 및 유통 구조개선 등 사업전반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이처럼 농안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된 주된 요인은 기금 성격과 동떨어진 농식품펀드 출자가 문제. 이와 관련, "농식품 전문투자펀드의 성격상 농안기금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당초 출자를 반대했지만 예산당국의 강한 요구로 출자가 시작된 것"이라며 "내년 부터는 기금운용이 정상화돼 예전 처럼 안정될 것"이라고 지적

자료 : 농민신문(2012.10.8).

※ 본 자료는 10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보다 소폭 상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총괄

- **2012년 FAO 9월의 식량가격지수**는 전월(213 point) 보다 높은 **216 point 기록**
 - 이는 7월 이후 2개월 만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 2월(238 point) 보다 9% 낮고, 전년 동월(225 point) 대비 4% 하락한 수치
 - ※ 식량가격지수: ('11.12월)211 → ('12.1월)213 → (4월)213 → (7월)213 → (9월)216
- 설탕, 유지류의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곡물, 육류 및 유제품 가격은 상승**함으로써 **9월 식량가격지수는 소폭 상승**

□ 주요 품목별

- **(곡물) 전월(260 point) 보다 1% 상승한 263 point 기록**
 - 밀과 쌀 가격의 상승이 옥수수 가격의 하락을 상쇄하면서 곡물 가격 지수의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러시아가 밀에 관한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밀 가격은 하락
- **(유지류) 전월(226 point) 보다 0.4% 하락한 225 point 기록**
 -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씨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팜유 가격은 생산 증가와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인해 2개월 연속 하락세
- **(육류) 전월(171 point) 보다 21% 상승한 175 point 기록**
 - 이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곡물 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돼지, 가금육의 가격이 각각 6%, 2% 상승하면서 육류 가격지수 상승 견인

- **(유제품) 전월(176 point) 보다 7% 상승한 188 point 기록**
 - '11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
 - 지속적인 유제품 수요 외에 사료가격 상승 요인으로 탈지분유 및 카제인의 가격이 12% 상승
- **(설탕) 전월(296 point) 보다 4.2% 하락한 379 point 기록**
 - 전년 동월(379 point) 대비 25% 낮은 수치
 - 이는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사탕수수 수확 증가, 인도, 중국, 태국 등 주요 생산지역의 작황 호전 전망에 따른 것

□ 2012/13년도 세계 곡물공급량 전망

- **2012/13년도 세계 곡물생산량: 2,286백만 톤 전망**(전월 대비 0.4%(9백만 톤) 감소, 전년 대비 2.6%(61백만 톤) 감소)
 - 유럽 중부 및 남동부 지역의 지속적인 가뭄, 미국, 유럽, 중앙아시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 밀 등의 생산량 감소 전망을 반영**에 따른 것
 - ※ 주요 곡물 생산량 전망치:
 - 쌀 전년과 동일
 - 잡곡 2.3% 감소(26백만 톤)
 - 밀 5.2% 감소(36백만 톤)
- **2012/13년도 세계 곡물소비량: 2,314백만 톤 전망**(전월 대비 0.1%(2백만 톤) 감소, 전년 대비 0.1%(3백만톤) 감소)
- **2013년도 세계 곡물 기말재고량: 499백만 톤 전망**(기초재고량 대비 5.3% 감소)
 - ※ 주요 곡물 기말재고율 전망치:
 - 쌀 34.5%
 - 잡곡 13.1%
 - 밀 24.8%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